
[한 · 일 수교 60주년 계기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] 국외출장 결과보고

2024. 12.

[한·일 수교 60주년 계기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외출장 결과보고(안)

(‘24. 12., NRC 연구지원본부)

I 출장 개요

일자	방문기관
2024. 12. 3.	출국, 주일본한국대사관 차담회, 포럼 사전 준비 회의
2024. 12. 4.	‘한일수교 60주년 계기 한일 국제심포지엄’ 포럼 개최
2024. 12. 5	귀국

1. 출장 일정

장소	일자	시간	일정	비고
일본 (도쿄)	12. 3. (화)	12:25 ^{한국} ~ 14:25 ^{일본}	(출국) 김포(GMP) → 하네다(HND)	아시아나항공 (2시간)
		14:25	숙소 이동 및 체크인	도쿄베이시오미 프린스호텔
		16:30 ~ 17:30	주일본한국대사 차담회	주일본한국대사관
		18:00 ~	한일수교 60주년 계기 한일 국제심포지엄 사전점검회의	(대사관 부근)
	12. 4. (수)	09:30 ~ 17:50	한일수교 60주년 계기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	일본 도쿄대학교 (홍고캠퍼스) 국제학술연구동
		18:00 ~	연찬회	(도쿄대 인근)
김포	12. 5. (목)	15:55 ^{일본} ~ 18:30 ^{한국}	(귀국) 하네다(HND) → 김포(GMP)	아시아나항공 (2시간 35분)

2. 출장자

기관명	출장자
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<4명>	신동천 이사장
	윤두섭 연구지원본부장
	노용식 연구기획부장
	황용희 연구기획부 전문위원

※ 타 기관 출장동행자

기관명	출장자
대외경제정책연구원* <5명>	이시욱 원장
	김규판 선임연구위원 (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)
	이형근 선임연구위원 (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)
	이보람 전문연구위원 (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)
	김승현 전문연구위원 (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)
NRC일본연구회* <5명>	이 혁 한일미래포럼 대표 (前)주베트남 한국대사)
	김지영 한양대학교 교수
	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
	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
	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수

3. 출장배경 및 목적

- 연구회(NRC)는 핵심국정과제 정책연구플랫폼으로 NRC일본연구회를 구성·운영 중이며('24. 7월~), NRC일본연구회는 한일수교 60주년을 계기로, 정부정책참고자료로서, 한일협력분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('24. 7월)
- 한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, 일본측 파트너(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)와 NRC일본연구회가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일본(도쿄)에서 개최하기로 함('24. 9월)

- NRC일본연구회는 외교부 간담회('24. 8월), NRC일본연구회 회의 개최('24년 1~4회)를 통해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해 열개와 쟁점을 정리하였음
- 한일 민간교류 확대 등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부응하고,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, 한일협력분야에 대해 일본 현지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, NRC일본연구회를 통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함

4. 출장 출장 간 주요 활동

방문기관	기능	방문시 주요활동
①주일한국 대사관	주일본대한민국 대사 차담회	[행사 설명 및 한일협력 관련 의견 교환] ○ 연구회 측 - 신동천 이사장(연구회) - 이시욱 원장(대외경제정책연구원) - 이 혁 위원장(NRC일본연구회) - 조양현 교수(국립외교원, NRC일본연구회) - 윤두섭 본부장(연구회, NRC일본연구회) * 배석(노용식 연구기획부장, 황용희 전문위원) ○ 주일본한국대사관 측 - 박철희 대사(주일본한국대사)
②동경대학교 (동양문화 연구소)	한일수교 60주년 계기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	[한일국제심포지엄 개최] - 신동천 이사장 : 개회사 및 폐회사 - 윤두섭 본부장 : NRC일본연구회 위원, 심포지엄 전체 사회 - 노용식 부장 : NRC일본연구회 간사 - 황용희 전문위원 : 실무지원

II

출장결과

1. 주일본대한민국 대사와 연구회, NRC일본연구회 위원 등 간 차담회

- 일시·장소 : '24. 12. 3.(화), 16:30~17:30,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
- 참석자
 - (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) 박철희 대사, 이혁상 참서관, 권숙희 서기관 등
 - (NRC일본연구회) 이혁 위원장, 조양현 위원
 - (연구회) 신동천 이사장, 윤두섭 연구지원본부장, 노용식 연구기획부장
 - (연구기관) 대외연(KIEP) 이시욱 원장
- 주요내용
 - (NRC일본연구회) NRC일본연구회구성·역할, 한일국제심포지엄 취지와 프로그램, 한일수교 60주년 계기 한일협력부문에 대한 종합 보고서 작성을 설명함
 - (주일본대한민국대사) 한일수교 60주년 준비와 관련하여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 뿐만 아니라 일본 입헌민주당과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.
 - 지난 9월 강경 보수성향의 다카이치에 자민당 총재 결선투표에 스가 요시히데·기시다 전총리 등의 지원으로 승리하는 등 한일관계에서 '유화파'로 생각되나, 10월 총선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에도 못 미쳐 국정운영 동력이 걱정되고 있음
 - 일본측도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민간교류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.
 - 특히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으로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예정임
 - 일본 젊은 층이 한국을 좋아하고, 관광확대 등 민간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부응하여 NRC일본연구회가 일본측 파트너와 한일 전문가가 지속적인 토대를 만들어줬으면 함



대사 차담회("24.12.3.)



대사 차담회("24.12.3.)



대사 차담회("24.12.3.)



대사 차담회("24.12.3.)

2. 2024 NRC일본연구회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준비 회의

- 일시·장소 : '24. 12. 3.(화), 16:30~20:00,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인근
- 참석자 : 총 35명
 - (정부부처)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 등
 - (NRC 일본연구회) 이혁 위원장(NRC일본연구회), 조양현 교수(국립외교원), 김지영 교수(한양대학교) 등
 - (대외 硏) 원장, 선임연구위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인턴 등
 - (연구회) 이사장, 연구지원본부장, 연구기획부장, 전문위원 등
 - (발제 및 토론자) 이종원 명예교수 (와세다대, 릿쿄대), 신정화 교수(동서대학교) 등
 - (심포지엄 관계자) 도쿄대학교 및 컨퍼런스 운영 대표·관계자 등
- 주요내용 : 「2024년 NRC일본연구회 한일 국제심포지엄」 최종 점검
 - 2024년 NRC일본연구회 한일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구성 관련
 - 2025년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수교를 맞는 60년이 되는 계기의 금번 국제심포지엄은 수교 60주년에 앞서 양국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구축 방안에 대한 접근법과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
 - 한·일 정상회의가 12년 만에 개최('23.3.)되고, 양국 관계가 정상화 되는 것은 물론, 한·미·일 정상회의('23.8), 나아가 한·일·중('24.5), 정상회의의 토대를 제공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
 - 경제안보와 자유무역에 균형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,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융합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됨, 정체-경제 간 전략적 대화와 협력이 중요할 것이며 이것이 한·일 경제 안보 정책의 핵심이 될 것
 - 2024년 NRC일본연구회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기대 효과
 - 금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의 한일 관계를 경제, 외교, 안보, 글로벌 협력, 민간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해보고자 함

- 다양한 협력 의제들이 향후 한·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되고, 2025년 한·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한일 협력방안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- 금번 심포지엄에서 개진된 의견은 한일수교 60주년 계기와 향후 10년간 한일 관계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전략/종합보고서로 제작되어 정부 부처 등에 정책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

3. (한일수교 60주년 계기) 한일국제심포지엄 개최

- 일시·장소 : '24. 12. 4(수), 09:30~17:50, 일본 도쿄대학교
- 주최·주관 : NRC/ (韓) KIEP, NRC일본연구회
(日) 도쿄大 동양문화연구소
- * 진행방식 :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위해 비공개 진행, 한·일 동시통역 제공
- 대 주 제 : 지속가능한 한·일 협력 구축 방안 : 접근법과 협력분야
- 세션구성(안)
 - (1세션) 지속가능한 한일관계 토대 강화 (ex) 총론, 인적교류, 과거사 등)
 - (2세션) 국제질서 구조 전환과 한일협력 (ex) 안보협력, 경제안보, 산업구조 등)
 - (3세션) 가치외교와 글로벌 협력
(ex) 자유민주주의 가치협력, ODA·여성 글로벌 기여협력, 테크놀로지, 글로벌 협력)
- 세부 프로그램(안)

시 간		내 용
진행사회 : 윤두섭 (NRC 연구지원본부장, NRC일본연구회)		
09:30~09:35	(5')	< 내빈소개 >
09:35~09:55	(20')	< 개회식 > · 개회사 : 이시욱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) 中島隆博(나카지마 타카히로) (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장) 이 혁 (NRC 일본연구회 위원장)

시 간		내 용
		· 환영사 : 신동천 (NRC 이사장)
09:55~10:25	(20')	< 키노트 스피치 > · 田中均(다나카히토시) (前 외무부심의관)
10:25~10:35	(10')	<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>
10:35~12:15	(100')	< 제1세션 > 지속가능한 한일관계 토대 강화 · 사 회 : 이 혁 (NRC 일본연구회 위원장) · 발제1 : (韓) 조양현 (국립외교원 교수, NRC일본연구회) · 발제2 : (日) 佐橋亮(사하시료) (도쿄대 교수) · 발제3 : (韓) 박명희 (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, NRC일본연구회) · 토론1 : (日) 西野純也(니시노준야) (게이오대 교수) · 토론2 : (韓) 신정화 (동서대학교 교수)
12:15~13:30	(75')	< 오찬(도시락) >
13:30~15:30	(120')	< 제2세션 > 국제질서 구조 전환과 한일협력 · 사 회 : 이종원 (와세다대 명예교수, 릿쿄대 명예교수) · 발제1: (日) 鈴木一人(스즈키카츠토) (도쿄대 교수) · 발제2: (韓) 김지영 (한양대 교수, NRC일본연구회) · 발제3: (日) 久野新(쿠노아라타) (아시아대 교수) · 발제4: (韓) 김규관 (KIEP 선임연구위원, NRC일본연구회) · 토론1: (日) 関根豪政(세키네 타케마사) (요코하마국립대 교수) · 토론2: (韓) 강선주 (국립외교원 교수) · 토론3: (日) 安倍誠(아베마코토) (아시아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)
15:30~15:40	(10')	< 휴식 및 장내정리 >
15:40~17:40	(120')	< 제3세션 > 가치외교와 글로벌 협력 · 사 회 : 飯田敬輔(이이다 케이스케) (도쿄대 교수, 미래비전연구센터유닛장, 전공공정책대학원장) · 발제1 : (韓) 한의석 (성신여대 교수, NRC일본연구회) · 발제2 : (日) 西沢利郎(니시자와토시로) (도쿄대 교수) · 발제3 : (韓) 이종원 (와세다대 명예교수, 릿쿄대 명예교수) · 발제4 : (日) 詫摩佳代(타쿠마 카요) (게이오대 교수) · 토 론 : (日) 伊集院敦(이주인 아쓰시) (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)
17:40~17:50	(10')	< 폐 회 >

※ 상기 세부 프로그램의 시간 및 참여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○ 심포지엄 주요 내용

- (개회식)

- ☞ 윤두섭 NRC본부장(NRC일본연구회 위원) [전체사회] ; 심포지엄 취지 및 주요 참석자 소개.
- ☞ 이시욱 (대외연구 KIEP 원장) ;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둔 심포지엄 개최의 의미 강조.
- ☞ 나카지마 타카히로 (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장) ; 한일 관계의 긴밀성과 학술 교류 필요성 제기.
- ☞ 이혁 (NRC일본연구회 위원장) ; 국제정세 속 한일 협력 중요성 강조.
- ☞ 신동천 (NRC 이사장) ; 2024년 한·일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공동의 역사와 미래를 인식하고 다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



<대외연 원장>



<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장>



<NRC 일본연구회 위원장>



<NRC 이사장>

- (기조연설) 지속 가능한 한일협력 기반 구축 방안

☞ 다나카 히토시 (전 외무성 외무심의관)

- 한일 관계는 국내 정치 및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.
- 과거사 문제와 민족 감정이 관계 저해 요인.
- 국익을 위한 협력 필요, 특히 미중 갈등 속 협력의 중요성 강조.
- 한일 협력은 자유무역 및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.



<기조연설>

- (제1세션. 지속가능한 한일관계 토대 강화)

<발제>

(1)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 토대 강화

☞ 발제자: 조양현 교수 (국립외교원)

- 윤석열 정부 이후 한일 관계 복원 및 협력 강화
- 국제 정세 불안 및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주요 도전 과제
-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 해결 필요
- 경제·문화·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 제시

(2) 국제질서 구조 전환과 한일 협력

☞ 발제자: 사하시 료 교수 (도쿄대)

- 미국·중국·러시아 등 국제 관계 변화 속 한일 협력의 중요성 강조
- 일본 내 정치 불안정성 및 한일 협력 유지 필요성 제기
- 동북아 안보와 자유무역 체제 유지가 한일 공통 이익임

-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

(3) 가치 외교와 글로벌 협력

☞ 발제자: 박명희 입법조사관 (국회입법처)

- 한일 인적교류 1,000만 시대 도래
- 인적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 부족
- 청소년 및 차세대 교류 프로그램 강화 필요
- 워킹홀리데이, 유학생 교류, 지자체 협력 등 구체적 협력 방안 제시

<토론>

☞ 니시노 준야(게이오대 교수)

-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일 관계 개선의 주요 동력이었으나, 최근 비상사태로 동력 상실 우려
- 이시바 총리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강하지만, 국내적 어려움이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
-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와 사무국 설치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됨

☞ 신정화(동서대 교수)

-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기조와 기시다 총리의 호응 덕분에 한일 관계가 발전했음
- 그러나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모두 낮은 지지율로 한일 관계 지속에 불확실성이 존재
-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한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강화와 안보 및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.

☞ 종합토론

- 사도광산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대 차이가 크며, 일본이 더 이상의 양보를 할 가능성은 낮음
- 한미일 협력 강화와 병행하여 한중일 협력도 추진해야 하며, 두 협력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함
-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외교적 균형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

<발제>

☞ (1) 스즈키 카즈토(도쿄대 교수)

- 일본의 경제안보는 지정학과 지경학이 결합된 형태로, 경제가 무기화되는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
- 2022년 경제안보추진법을 제정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, 핵심 인프라 보호, 기술 유출 방지 및 이중 용도 기술 개발을 추진
- 전략적 자립성과 불가결성을 목표로 일본은 기술, 자본, 인재 확보에 주력하며, 최근 경제산업성 조직을 개편해 경제안보 중심 정책을 강화

☞ (2) 김지영(한양대 교수)

- 한일 안보 협력의 기준은 김대중-오부치 선언으로, 이후 협력이 제도화됨.
- 최근 한일 안보 협력은 증가했으나, 일본이 호주, 인도와는 준동맹 수준의 협정을 체결한 반면 한국과는 우호국 수준에 머무름
-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, 양자 안보 협정 체결,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

☞ (3) 쿠노 아라타(아지아대학 교수)

-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일 기업은 미국, 중국 시장에 적응해야 하며,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이 필요
- CPTPP 가입과 IPEF 활용이 필요하며, 한일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완화해야 함

☞ (4) 김규판(KIEP 선임연구위원)

- 한일 간 무역·투자 의존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협력 패러다임 필요
- 수소, 핵심 광물, 제약·바이오, 저출산 등에서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,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이 강조

<토론>

☞ 세키네 타케마사(요코하마국립대 교수)

- 경제안보와 법의 지배는 양립 가능하나, 유연성 부족이 문제
- GATT 제21조가 경제안보 관련 조항이지만 일반적이고 구체성이 결여 WTO 규범 재편 논의가 필요하며 CPTPP 가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음

☞ 강선주(국립외교원 교수)

- 국제질서 변화(양극화, 분절화)가 한일 협력 강화의 동력임
- 김지영 교수는 인도-태평양과 한반도 안보협력 방안을 제안했으며, 스즈키 교수는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간접적으로 언급
- 미국발 단기적 변화(트럼프 재집권)에 한일이 공동 대응해야 함

☞ 아베 마코토(아시아경제연구소)

- 한일 관계는 과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경쟁으로 전환됨.
-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며 협력 필요성이 대두
- 수소, 반도체, 철강 등에서 한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, 정치적 불안정성이 과제가 될 것임

☞ 종합토론

- 한일 경제안보 협력은 필요하지만, 국내정치 및 대중국 경제관계가 변수임
- CPTPP, IPEF와 같은 플랫폼에서 규범 형성 논의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함.

- (제2세션. 국제질서 구조 전환과 한일 협력)

- (제3세션. 가치외교와 글로벌협력)

<발제>

☞ (1) 한의석(성신여대 교수)

- 한일 협력은 특정 지도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속적 논의가 필요
- 글로벌 기여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크며, 보건, 기후변화, 재난구호 등에서 협력 여지가 큼
- 한일 ODA 격차(일본 196억 달러, 한국 31억 달러)를 좁히고 민간 영역 협력 확대 필요

☞ (2) 니시자와 토시로(동경대 교수)

-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한일 협력의 핵심 가치임
- 아시아 기후변화 대응에 양국이 주도적 역할 가능
- 공적자금 동원과 민관 협력 강화 필요하며, 한일 간 환경정책 대화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중요

☞ (3) 이종원(릿쿄대 명예교수)

- 트럼프 시대는 중장기적 추세로 한일 협력에 구조적 변화 유발
- 한일 협력은 글로벌보다는 아시아 지역(ASEAN, 태평양 도서국)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
- 복수국 협력을 통한 다층적 협력 체제 마련 필요

☞ (4) 타쿠마 카요(게이오대 교수)

- 글로벌 보건 협력은 한일이 갈등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, 팬데믹 대응 등에서 공동 대응 필요
- 한국 WHO 바이오 허브와 일본 CDC 오피스 등을 통해 한일 간 보건 협력 확대 가능
- 아시아 지역 보건 안보 강화에 한일 연계가 필수적임

<토론>

☞ 이주인 아츠시(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)

-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가치 외교를 강조하며 글로벌 협력을 강화
- 한미일 협력은 안보를 넘어 인도-태평양 및 글로벌 이슈로 확장되고 있으며, 한일중 협력은 인적교류, 경제통상, 기후변화 등 6대 분야에서 강화됨
- 2024년 일본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 발전 논의 필요
- 기후변화 대응 및 공중보건 협력은 3국 협력의 핵심이며, 감염병 대응과 고령화 문제에서 협력 필요
- 공동 팬데믹 대응 성명 및 재난구호, 안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추진

☞ 종합토론

- 한미일 협력은 신냉전 시대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강화되며, 가치 외교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균형이 필요함
-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 및 동남아와 협력 확대, 주권과 다양성 존중의 포용적 외교가 부각됨
- 한일중 협력은 경쟁을 넘어 상호보완적 협력 체제로 발전해야 하며, 글로벌 협력의 틈을 메우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함



4. 종합 결론

-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, NRC정책연구플랫폼 등은 한일 민간교류 확대 등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부응
-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, 한일 협력분야에 대해 일본 현지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(국제심포지엄)하여, NRC일본연구회는 종합보고서를 작성
- 일본 동경대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한-일 연구 네트워크 강화

Ⅲ 향후 계획

- 한일 국제심포지움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한일협력 전략보고서 작성 : '24.12월 限
- (정부부처 참고자료용) 한일수교 60주년('25.6.22.)계기, 한일관계 협력방안 분야별 종합보고서 작성/ 정부부처 전달: '25.5월 限
- 한일수교 60주년 계기, 한일 국제심포지움 개최('25. 하반기)